

시설보호 청소년이 경험하는 시설 생활의 의미

정 선 옥*

초 록

본 연구는 양육시설에서 생활하고 있는 청소년들이 시설 생활을 어떻게 경험하고 이해하고 있는가를 알아보기 위한 목적에서 이루어졌다. 이를 위해 대숙사 형태의 양육시설 한 곳을 찾아 중학교 1-2학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았다. 자료수집은 주로 개별 및 집단면접을 통해 이루어졌고 질적연구방법의 일반적인 절차에 따라 자료를 분석한 결과 6가지 주제가 도출되었다. 청소년은 시설 생활에서 '시설은 삶의 일부', '소통부재=일방통행', '오붓한 가족생활을 그림', '공동체라는 이름 속에 묻혀 지냄', '성장을 자극하는 환경 부재', '아이들끼리 더 가까움'을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제어 : 시설 생활, 시설 환경, 질적 연구

* 덕성여자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조교수

I. 서 론

본 연구는 시설에서 생활하는 청소년이 자신에게 최초의 생활 환경 혹은 제2의 가정인 시설에서 어떻게 살고 있는지를 이해하기 위한 것이다. 즉, ‘시설에서 산다는 것은 어떤 의미인가’에 대한 이해를 하고자 하는 것이다. 본 연구는 이를 위해 시설에 대해 시설보호 청소년은 어떻게 이해하고 있으며 그 안에서 어떻게 생활하고 있는가를 알아보았다.

태어나는 순간부터 시설에서 생활하게 된 경우뿐 아니라 가정에서 생활하다가 갑작스럽게 시설에 입소하는 경우에도 가정 복귀는 매우 제한적이다. 결과적으로 시설 환경은 다른 어떤 환경보다도 시설보호 청소년의 심리사회적 적응에 중요하다.

외국의 경우 시설보호와 관련하여 1940년대부터 진행된 연구들을 통해 시설보호 아동들이 인지적 손상과 함께 정서적, 행동적 장애를 보인다는 사실들이 일관되게 보고되면서, 시설보호는 급격히 감소하였다(Vorria, et al., 1998). 그러나 어떤 아동들에게는 가정보다 시설이 더 필요하며 생활시설 환경도 잘 계획해서 활용한다면 아동과 청소년의 보호에 충분히 가치 있는 서비스가 될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Whittaker, 2000; 이해연·서정아·조흥식·정익중, 2007 재인용).

우리나라 경우에도 시설병(hospitalism)으로 명명되는 시설보호 아동·청소년의 부정적인 특성들이 보고되고 대규모 시설의 문제들이 지적되면서 소규모 시설보호 서비스(그룹홈), 특히 최근 들어 입양, 위탁과 같은 대리적 보호 서비스에 대한 관심이 크게 증가하였다. 2007년의 경우 도움이 필요한 아동 8,861명 가운데 시설보호에 3,255명(36.6%)이 배치되었고, 위탁보호, 입양 등의 가정보호에 5,616명(63.5%)이 배치되었다. 2006년부터 가정보호에 배치되는 아동의 수가 시설보호 아동 보다 많아졌지만 여전히 대다수의 도움이 필요한 아동·청소년들은 아동양육시설을 포함한 아동복지시설을 이용하고 있다. 한편, 노혜련 외(1997)의 연구에 의하면, 시설 퇴소 이후에 시설과 관계를 지속하고 싶어하는지의 여부를 묻는 질문에서 대다수(77%)가 시설과의 관계를 지속하고 싶다는 응답을 하였는데 이로부터 시설에서의 생활이 시설보호 아동·청소년에게 갖는 의미를 짐작할 수 있다.

시설 환경과 관련된 기존의 연구들은 대숙사, 소숙사 등의 시설 규모에 따른 시설

양육 환경의 차이에 초점을 맞추거나(이태수 외, 1997; 이준의, 1997; 정혜수, 1999; 석정삼, 1999) 양적인 연구방법을 사용하여 청소년이 지각한 양육환경과 심리사회적 적응(발달)간의 관련성을 분석(양점도·변미희, 2001; 이미혜, 2002; 정선욱, 2002; 이상준, 2008)하고 있다. 시설 환경과 관련된 기존의 연구와 다소 이질적인 것으로 건축설계의 측면에서 시설의 생활공간(주거형태)과 이에 따른 아동·청소년 행동 특성에 대해 기술적으로 살펴본 연구들이 몇 편 있다(권재웅·김종영, 1999; 권재웅, 2005; 유수훈, 2007). 이들 연구들은 시설보호 청소년의 적응(발달)에서 시설의 양육환경이 중요함을 지적하면서 대규모 시설을 소규모 시설로 전환할 필요성, 채광·환기, 생활·공부·놀이(휴식)를 위한 공간 구성 등과 같은 물리적 환경 개선의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다.

그러나 이들 양적 연구는 몇 가지 점에서 한계를 갖는다. 첫째, 일반 가정환경 측정도구를 사용하여 시설 환경을 연구한다는 점이다. 시설 환경 설문 문항은 기존 가정환경 측정도구의 “가족”을 “시설”로, “부모”를 “보육사(선생님)” 등으로 대치한 것으로, 이를 통해서는 시설 고유의 특성을 발견하기 어렵다. 둘째, 시설보호 청소년이 보이는 조사 저항이라는 변수도 있다. 시설 관계자들에 의하면, 한 해에도 수차례 이루어지는 엇비슷한 조사에 청소년들은 무관심 혹은 반감 등의 태도를 보인다고 한다. 이런 이유에서 양적연구를 통해 청소년의 시설 생활을 살펴보는 것은 쉽지 않다.

시설보호 아동·청소년에 대한 효과적인 원조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당사자 입장에서의 경험 연구가 필요하다. 경험의 본질 혹은 의미를 이해하기 위한 연구는 현장으로 나가서 사람들이 행하고 생각하는 것을 관찰해야 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위해서는 양적 연구가 아닌 질적 연구 방법이 효과적이다(Strauss & Corbin, 1998; 김연미, 2002 재인용).

한편, 시설에서 생활 중인 아동·청소년을 이해하기 위해 질적 연구 방법을 도입한 논문이 간호학, 사회복지학 분야에 몇 편 있다. 간호학 분야에서는 이양숙(2000), 김미영(2002)이 있다. 해석학적 현상학을 적용한 이양숙(2000)의 경우, 시설보호 아동의 부모 체험을 중심으로 부모 체험의 본질을 “막연히 그리워하며 기다림”, “친구 부모를 보고 상상하며 그리워함”, “원망하며 잊혀져감”, “운명으로 돌림”, “마음을 열기 어려워짐” 등으로 파악하였다. 문화기술지 연구방법을 적용하여 문화적으로 구성된 환경의 맥락에서 시설보호 아동의 삶의 의미 구조를 파악한 김미영(2002)에 의하면,

시설보호 아동의 삶에는 “자신의 처지에 대한 분노”, “현실로부터 벗어나고 싶음”, “자기 연민”, “순수한 마음”, “자기 자신에 대한 수용”이라는 의미가 담겨있다.

사회복지학 분야의 연구로는 정선옥(2006a, 2006b)이 있다. 이 연구는 비혈연형제 관계, 보육사와의 관계에 초점을 맞춰 시설보호 아동·청소년의 삶을 그려내고 있다. 이들 연구들은 시설보호 아동·청소년의 경험 세계를 이해하는데 많은 도움을 주었으나 부모-자녀관계(부모 체험), 시설보호 아동·청소년간의 관계(비혈연형제관계), 시설보호 아동·청소년-보육사 관계 등에 집중함으로써, 삶의 터전으로서의 시설 생활이 갖는 포괄적인 의미를 담아내지 못한 아쉬움이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시설보호 청소년들이 시설생활에 대해 전체적으로 어떻게 경험하고 이해하는가를 밝히고자 하였다. 특히, 본 연구는 청소년 가운데 상급학교 입학, 사춘기, 역할 전환 등으로 후기 청소년보다 학교와 장래영역에서 더 많은 스트레스를 겪는 초기 청소년(Seiffge-Krenke, 1995; 박영숙, 2003 재인용)들의 경험에 초점을 맞추었다. 본 연구의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시설보호 청소년의 시설생활 경험은 어떠한가?

II. 이론적 배경

시설을 보통 제2의 가정이라고 부른다. 이것은 시설이 여러 가지 이유로 가정에서 생활하기 어려운 아동·청소년을 돌본다는 의미와 함께 시설에 대해 가정과 같은 환경을 제공하기를 바라는 기대를 반영한다. 일반적으로 가정은 인간이 사회화 과정을 경험하는 최초의 사회이면서 동시에 사회학습의 장이기 때문에 가정의 심리적 환경은 아동의 자아 개념뿐만 아니라 개인의 정신적 및 사회적 적응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이경숙, 1998). 그러기에 평균 10년 이상 생활하는 시설은 그것이 가정과 같은 기능을 수행하는가에 관계없이 시설 청소년에게 매우 중요할 수밖에 없다.

시설 환경과 관련된 국외 연구들은 주로 시설보호 폐지 주장의 근거가 되었다. 1940년대부터 진행된 시설보호 관련 연구들은 일관되게 시설보호 아동·청소년의 부

정적인 측면을 보고했고 그 결과 실제로 여러 나라에서 시설보호가 급감하였다. 외국의 경우 시설보호에 대한 부정적인 견해가 지배적이지만, 아동발달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동이 배치된 환경이 시설이나, 위탁가정이나의 문제라기보다 보호의 질이 중요하다는 지적도 있다(Garvin & Sacks, 1963).

로이 외(Roy 등, 2000)는 시설보호를 포함한 대리적 보호를 받는 아동의 정신병리적 위험이 부정적인 가족 배경 혹은 대리적 보호의 양육 패턴에서 발생하는 정도를 알아보기 위해, 주거시설(시설보호)에서 생활하는 19명의 아동과 지속성·안정성을 특징으로 하는 위탁 가정보호를 받는 19명을 비교하였다. 이 연구에 의하면, 시설보호 아동에게서 발견되는 높은 수준의 과잉행동과 주의력 결핍은 아동의 생물학적 배경 혹은 유아기 초기의 경험 때문이 아니라 시설의 비전형적인 양육 패턴 때문으로 나타났다. 시설의 비전형적인 양육 패턴은 개별화된 양육이 제공되지 않은 집단 보호, 양육자의 잦은 교체, 보호 아동의 변동 등이다. 또한, 대리적 보호에서 제공되는 양육의 분위기 특성과 양육의 질, 일관된 양육과 안정성 등이 심리사회적 기능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보호 아동의 문제와 취약성을 약화시킬 수 있다(Timberlake & Verdieck, 1987; Leathers, 2000). 이러한 결과는 시설 환경이 갖는 중요성을 보여준다.

시설 환경과 관련된 국내 연구들은 시설의 규모에 따른 시설 환경의 차이를 본 연구, 시설 유형별로 물리적·심리적 양육 환경의 만족도를 비교한 연구, 마지막으로 시설 환경과 아동 청소년의 심리사회적 적응간의 관련성을 살펴본 연구로 분류할 수 있다(김민자, 1992; 이태수 외, 1997; 이준의, 1997; 정해수, 1999; 유안진 외, 2001; 양점도·변미희, 2001; 이서정, 2001; 정선욱, 2002; 이상준, 2008). 이들 연구들은 시설 환경이 아동·청소년 발달과 적응에 중요한 요인임을 지적하면서 소규모 시설로의 변화를 제안하고 있다.

시설 환경의 중요성을 공통적으로 지적한 기존 연구들 사이에 상이한 결과도 있다. 이것은 가정환경 측정도구를 사용하여 시설 환경을 측정한 연구에서 발견된다. 예를 들어, '월등하게 높은 포부수준을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를 격려, 요구하며 항상 활동하기를 권장하고 박력과 끈기, 주의력을 집중시켜 활동하기를 기대하는 경향'인 '성취'라는 시설 환경 하위요인과 관련하여, 이서정(2001)의 연구는 성취가 심리적 적응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정선욱(2002)의 경우는 시설 환경을 성취 지향적으로 지각할수록 심리정서문제를 많이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주위의 사

물이나 타인에 대하여 편견을 가지지 않고 대하며, 미지의 사태에 대하여 과감하게 대처해 나가도록 기대하는 경향'인 '개방'이라는 시설 환경 하위요인에서는 이미혜(2002)는 개방적 환경(태도)가 자아개념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정선욱(2002)의 경우 개방적 환경은 행동문제 발생과 정적 관계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연구에 따라 시설 환경이 시설보호 아동·청소년에게 미치는 영향이 다르다는 것은 '시설에서 산다는 것'의 의미에 대한 재해석이 필요함을 보여준다.

Ⅲ. 연구방법

1. 연구 참여자

본 연구의 연구 사례가 된 양육시설은 50년이 넘는 역사를 갖고 있는 대숙사 형태의 시설이다. 육아시설 1층에는 여자 아동을 위한 공간과 사무실, 세탁실, 도서실, 식당 등이 있으며 육아시설 2층에는 남자 아동을 위한 공간, 상담실, 강당이 있다. 아동을 위한 공간은 4개의 방, 화장실, 거실 등으로 꾸며져 있다. 한 방에는 여자 아동은 5-6명, 남자 아동은 4-5명이 생활하고 있다.

연구 참여자는 본 연구자가 2004년 처음 이 시설을 방문했을 당시, 중학교 1~2학년에 재학 중이었던 청소년들이다. 2004년 당시 이 시설의 중학생은 남자 4명, 여자 2명 모두 6명(중2: 3명, 중1: 3명, 7년 - 10년 생활)이었는데, 이들 모두를 연구 참여자로 결정하였다.

2. 자료 수집과 분석

1) 자료 수집

본 연구는 주로 면접을 통해 자료를 수집하였다. 면접은 2004년 9월 9일 - 2006년 2월 17일까지 개별 및 집단 면접의 형식으로 진행되었는데 개별 면접은 청소년 1명

당 3-4회, 집단 면접은 2회씩 수행하였다. 집단 면접은 집단 내 역동과 자유로운 분위기를 통해 정보의 부각과 노출 수준을 끌어올릴 수 있었다는 점(Berg, 2001; 최나야 외, 2002 재인용)에서 보다 자연스러운 상황에서 청소년들을 관찰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 면접은 양육시설의 허락을 받아 연구 참여자를 선정하고 연구 참여자의 동의를 구한 이후에 이루어졌고 장소는 대부분 양육시설에서 이루어졌지만 시설 밖에서도 2회 면접(개별 1회, 집단 1회)이 실시되었다. 면접은 1회당 30분 - 2시간씩 이루어졌고 면접을 진행하면서 이전 면접 내용을 녹취 혹은 청취한 후, 의미 확인을 위한 질문을 추가해가면서 후속 면접을 이끌어갔다(정선옥, 2006b). 참여 청소년들에게는 다음과 같은 질문을 했다. “시설 생활을 어떻게 묘사하겠는가?”, “시설 생활은 인생에서 어떤 의미를 가지는가?”, “시설하면 어떤 생각이 떠오르는가?” 등을 공통 질문으로 하였고 청소년들의 대답을 따라가면서 추가 질문을 하였다.

면접이 장기화되면서 청소년들과의 친밀한 관계가 형성되었고 이것은 이들의 실제 경험 세계를 이해하는데 유익한 환경을 제공하였다. 특히 시설 밖에서 이루어진 개별 및 집단 면접, 그리고 식사를 함께 하는 과정에서 청소년들의 속 깊은 얘기를 들을 수 있었다.

본 연구의 진실성(trustworthiness)을 높이기 위해서 다원화, 구성원 검토, 감사자료 보존 등의 방법을 활용하였다. 본 연구의 자료 분석은 주로 청소년과의 면접을 통해 얻은 자료를 토대로 하였지만, 다원화를 위해 관찰(음악 프로그램, 자유 놀이 시간, 식사시간 등), 문서 수집(심리검사지, 집단상담일지), 시설보호 아동·청소년 관련 문학 작품¹⁾, 관련 논문, 시설보호 관계자 인터뷰 등과 같은 여러 방법을 동시에 사용하였다. 구성원 검토를 위해서는 참여자에게 연구 결과를 보여주고 확인을 받았다. 마지막으로 감사 자료의 보존에서는 본 연구에서 활용한 모든 축어록, 메모 등을 남겨 두었는데 이는 연구를 재현할 수 있는 능력을 높여준다(Schwandt & Halpern, 1988; 김진숙이근무, 2005 재인용).

2) 자료 분석

수집된 자료는 김영천(1996)이 제시한 질적 분석의 일반적 절차를 참고하여 분석하

1) 정영애의 소설 「고아원 아이들」, 릴케 전집 희곡, 박종만의 소설, 「고아원2」 등 참고

였다. 우선 시설보호 청소년과의 면접을 통해 녹음한 자료를 축어록의 형태로 필사하였다. 축어록을 주의 깊게 반복해서 읽으면서 중요한 단어와 문장을 표시하고 개념화하였다. 개념화된 내용들을 떠오르는 주제에 따라 범주화한 후 원래의 자료(축어록)로 돌아가 다시 읽으면서 분석에 관한 처음의 생각을 재검토하였다. 이러한 과정에서 개념화가 다시 이루어지고 범주가 새롭게 생겨나며 유사한 범주가 통합되기도 하였다. 최종적으로 형성된 범주들에 대해 의미를 찾아 해석을 덧붙이는 것으로 분석을 마무리하였다. 자료를 읽고 개념화, 범주화하는 과정에서 질적분석 소프트웨어 NVIVO를 사용하였다.

IV. 연구결과

시설 생활 경험을 분석한 결과, 시설보호 청소년은 시설 생활에서 ‘시설은 삶의 일부’, ‘소통부재=일방통행’, ‘오붓한 가족생활을 그림’, ‘공동체라는 이름 속에 묻혀 지냄’, ‘성장을 자극하는 환경 부재’, ‘아이들끼리 더 가까움’을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에서는 연구 결과를 이들 6가지 주제에 따라 제시하도록 하겠다.

1. 시설은 삶의 일부

시설은 선택해서 살게 된 곳은 아니다. 그러나 시설에 오지 않았으면 어떻게 되었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 시설에 있어 다행이고 고맙다. 공부를 할 수 있게 된 것도 그렇고 사람을 많이 만나고 즐겁게 놀 수 있는 것도 좋다. 마음대로 할 수 없어 답답하고 화날 때도 많지만 가만히 생각해보면 나쁜 길로 빠지지 않도록 도와준 곳이기도 하다. 그런데 이런 고마움은 시설의 답답함에 묻히기 일쑤다. 한편, 오래 살다보니 정도 많이 들었고 특히 어린 동생들에 대한 차별함은 퇴소 이후에도 시설을 찾고 싶은 곳으로 만들었다. 어찌됐든 시설은 시설 청소년 삶의 일부이다.

1) 삶의 일부가 됨

시설에 오래 살아 이곳 생활에 익숙해졌고 그러다보니 편안하다. 오히려 잠자리가 바뀌면 불편하고 집(시설)을 떠나면 고생이라고 생각한다. 시설은 살아가면서 정이 든 고향과 같은 곳으로 퇴소 후 다시 찾고 싶은 것은 당연하다. 그러나 어떤 아이들에게 시설은 그냥 시설일 뿐이다. 시설에 대해 이러쿵저러쿵 할 필요가 없다. 좋아도 시설 일 뿐이고 싫다고 갈 곳이 있는 곳도 아니다. 좋고 나쁨이 없고 그냥 주어진 대로 살면 된다. 그저 머물러 있으면 그만이고 18세가 되어 퇴소하면 그만이다. 시설 생활이 뭐 특별하겠느냐! 생각하기 나름이다. 그래도 퇴소하면 생각날 것 같다.

그냥 제 인생의 거의 절반을 절반을 여기서 지냈으니까. 다시 돌아와서 인사도 드리고 (여, 13세)

어쩔 때 아빠 집 가면요. 정말 친부모님인데요. 가끔은요. 되게 그러 뭐라고 해야되지. 그가 낫설 때도 있어요. 내가 이 집에 사는게 아니고 매일 가는게 아니니깐요. 가끔 가끔 가니깐요. 어쩔 때 보면은 딱 되게 말하는게 좀 낫설 때가 있어요. 저희 집 아버지 같은 경우에는요 몇 년 동안 살았으니깐요. 매일 매일 보고 그러니까 낫선게 없어요. 오히려 좀 더 편해요.(중략) 항상 자던 테서 안자고 다른 테(아빠 집)에서 자면은 불편해요. 불편해요.(여, 14세)

그냥 살다가 어른 되면 나가면 되죠. (중략)고3까지 참자. 고 3 졸업하면 나갈 수 있으니까.(남, 14세)

2) 여기 없으면 어떻게 살아요?

시설에 오기 전에는 집에 혼자 있을 때가 많아 외롭고 심심했다. 할머니가 계셨어도 놀이 상대는 아니었고 외톨이로 지낼 때가 많았다. 그런데 시설은 친구도 있고 동생도 많다. 즐겁게 놀면서 지내는 것은 시설 청소년에게 큰 위안이 된다. 일단 현재가 즐거우니 고민을 잊을 수 있고 과거나 미래에 대한 복잡한 생각을 잠시지만 접어들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시설은 돈 걱정 없이 학교를 계속 다닐 수 있게 해 주었다. 아이들 표현에 따르면 여기 없으면 자신은 거지란다. 부모가 있는 집 아이들도 가기 어려운 해외여행을 시설에 있어 다녀올 수 있었다. 부모님과 같이 살지 않더라도 시설에 있으면서 주말이나 명절에 찾아가면 된다. 여기는 부모님 부담도 덜어드리고 아이들 자신도 별 걱정 없이 지낼 수 있는 곳이다.

거기(집)보다는 낫죠. 집에서는 심심하잖아요. 거기다가 아버지 술 드시는거 계속 보고. 그래도 여기 있으면 덜 보잖아요. 그래도 낫죠.(남, 14세)

(새)엄마랑 같이 살았으면요. 그게 되게 힘들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엄마랑 같이 살면요. 엄마가 애도 있는데 맞벌이 부부를 하다보면 애볼 사람이 없잖아요. 맞벌이를 한다고 하면 돈. 애가 4명인데 유치원 2명 보내야하고 학교를 보내야하니깐요. 돈이 만만치 않잖아요. 그러니깐 맞벌이 부부를 하신다고 하면 저희도 힘들고 엄마 아빠도 힘드니깐요. 여기서 자란거 자란게 참 고맙죠. 이렇게 자란게. 여기까지 저가 건강하게 자란게. 참 고맙고 좋으니깐. 만약 여기 아니고 엄마랑 살았다면 이제 학교도 다시 그거 고등학교도 아마 못 나왔을 것 같아요. (중략) 아무 걱정 안하고 살기도 돼요. 편하게.(여, 14세)

음 음. 가난한 사람들은요 진짜 가난한 사람들은 학교 못 다니잖아요. 그런데 우리 집은 보내주고 그리고 가난한 사람은 돈을 못 줘요.(남, 15세)

2. 소통부재=일방통행

시설 생활이 마냥 행복한 것은 아니다. 시설에서는 충분한 설명과 이해시킴이 부족하다. “그냥”이다. 예전부터 그래왔으니 그 상태 그대로 지내야한다. “왜”라고 물을 수 없고 “아니오”라고 대답하기 어렵다. 일방적인 통보와 해야 할 행동만 있을 뿐이다. 소통부재의 결과, 시설에는 이해할 수 없는 것이 많다. '왜 반찬이 매번 똑 같은지', '왜 자신들이 일을 해야 하는지', '정부 지원금은 어디로 갔는지', '왜 컴퓨터를 안 시켜주는지', '왜 선생님이 바뀌게 되었는지', '안 그래도 비좁은데 상담실은 왜 만들었

는지 ‘ 등 궁금한 것은 많은데 설명이 없다보니 의혹만 커지고 이것은 시설 선생님(운영자 포함)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진다.

1) 대꾸할 수 없음

“우리 모두를 위해”, “행사를 위해” 시설 아이들이 해야 할 일이 있다. 행사에 머릿수를 채우는 일은 모두에게 예외가 없다. 행사 준비를 위해 책상을 옮기고 짐을 나르는 일은 남학생의 몫이고 여자 아이들은 설거지를 도와야한다. 우리 집 일에 가족들이 서로 돕는 것은 당연한 일인데 시설 아이들에게는 짜증나고 부당하게 느껴진다. 명분이 있는 일, 좋아하는 일, 좋은 사람과 함께 하는 일, 칭찬과 격려를 받을 수 있는 일을 한다면 흔쾌히 일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시설의 일은 분명한 이유가 없이 그냥 해야 할 일이 많다. “네”, “아니오”, “좋아요”, “싫어요”, “다음이에요”, “잠깐만요” 등의 의견을 얘기하는 게 쉽게 않다. 얘기해도 소용없다는 것도 알고 있다.

강제로도 강제로도 보내는거. 가기 싫은대두요. 가기 싫은대두요. 와야! 인원수 채우려구 맞춰야하기 때문에 다 보낼 때도 있고 가기 싫은데도 억지로 가야되기 때문에 가야되고. 그때가 가기 싫어두요 어쩔 수 없이 그냥 갔다와야 되요.(중략). 억지로 갔다가 참고 와야 해요.(남, 14세)

싫다고 얘기해도 어차피 해야 되잖아요. (중략) 선생님이 어쩔 수 없다고 그냥 참으면서 하래요. 그러면 어차피 해야 하니까 그냥 해요.(여, 14세)

2) 갑작스러운 일정 변경

일과표처럼 짜인 일상에서 행사는 지루함을 깨고 새로움에 대한 기대를 갖게 하는 그런 일일 수 있다. 그런데 시설에 오래 있다 보면 행사도 일정한 패턴이 있어 새로움을 기대하기 어렵다. 오히려 갑작스러운 행사 계획이나 일정 변경은 일상의 소중함을 앗아가기도 한다.

갑자기 막 4시에 한다는 사람이 2시에 들어와 가지고 (컴퓨터) 못 했는데 별로. 그리고 뭐 1주일에 뭐 하루에 한 번씩 했던게요 1주일에 한 번으로 바뀌었어요? (중략) 한문 4시에 한다고 했는데요. 갑자기 2시에 들어와서요. 애들하고 끝났는데 갑자기 3시에 문을 건거예요.(그래서 컴퓨터 못했다는 얘기). (중략)한자도 원래 그 시간에 하는 거 아닌데요. 갑자기 10시에 시작해서요. 12시에 끝났는데요. 못한 애들이 3명이 있었어요. 3명을 4시에 한다고 했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하는데 2시에 들어오신거예요. 그래서 갑자기 그 때 하면서요 3시에 끝나고 갔어요. 뭐를 하면은요 꼭 다른 뭔가가 생겨요.(남, 14세)

면: 손님들 오면 어때? 다 연락들 하고 오나?(중략)

F: 아! 집에서 연락을 해도요. 저희들한테는 말을 안해줘요. 저희는 시내에 갑자기 나가려는데요 갑자기 행사 있다면서 하면 또 못나가죠.(집단면접 1)

3) 대화가 아니라 잔소리로 들려요.

소통부재의 결과 시설 선생님들이 하는 말은 모두 잔소리가 되고 잔소리 이면에 담겼을지도 모르는 관심과 배려는 좀처럼 전해지지 않는다. 시설 아이들은 선생님의 얘기를 쉽게 무시할 수는 없다. 그래서 선생님의 얘기를 듣고 그냥 따른다. 최소한 앞에서는 따른다. 그러나 달라지는 것은 없고 언제나 제자리이다.

변화의 해결책을 알고 있는 아이도 있다. 그것은 아이들이 무엇을 하고 싶은지 무엇을 원하는지를 읽어서 원하는 것을 할 수 있게 해주는 것이다. 이것은 아이들을 믿고 기다리는 어른들의 마음에서 만들어진다. 그러면 아이들은 변할 것이다.

자꾸요. 제가 하는 말 자꾸 뭐라고 그러구요. 막 저희들 하면요 뭐라고 그러구요. 옛날에는요 시내 나갈 때요 허락받지 않아도 됐는데요 허락 받으면서 나가야 되구요. 그리고 또 우리가 막 하는데 혼나고 막 옷을 입는 것도 뭐라고 그래요. 옷을 입는 것도.(중략) 뭐라고 하는 것도 있죠. 다른 것도 있죠. 다른 것 또.... (잠시 후에) 따져요. 잘못된 게 있으면요 제가 알았어요. 알았어요. 이제 안 그럴게요. 하면은요. 계속 끈질지게 물어요.(남, 12세)

(밖에서 아이들이 노는 소리가 계속 크게 들림)

면: 밖에 나가서 잠깐만 조용히 하라고 말하고 올게.

참: 아니요. TV보는데요. 거실로 가라고 하면 되는데. 거기가서 좀 놀아주면 안되냐고.

면: (문을 열고) 애들아! 거실가서 놀아주면 안될까? 고마워. (문을 닫고 들어옴) 00

가 현명하네. 선생님이 조용히 해 그러면 싫어요. 그랬을 것 같은데.

참: 싫어요. 그거 안 그러죠. ‘네에’ 그냥 알았다고 하겠죠. 딱 데 가서 놀으라고 하면

은요 게네가 알아서 딱 데 가서 놀잖아요. 조용히 하라고 하면은요. 아, 네! 하고 그러

죠. 조용히 놀거 아니에요. 차라리 딱 데 가세요. 시끄럽게 노는게 더 낫죠.(남, 14세)

4) 소통을 원함

신뢰관계가 만들어지지 않은 가운데 시설 선생님의 말과 행동은 아이들의 자유를 침해하고 아이들의 생활을 참견하고 간섭할 뿐이다. 시설 아이들은 자신들과 별 관계도 없어 보이는 시설 선생님의 얘기가 듣기 싫다. 그렇지만 대화에 목말라 있고 진정 관심을 받고 싶다.

(얘기를 나눈 후 소감을 묻는 질문에) 어! 후련했어요.(중략) 아무에게도 못했던 말을 말하니까 후련하죠.(남, 14세)

선생님들이요 일들이 바빠서가지구요. 저희들한테 관심을 가져주는 시간이 별로 없어요.(여, 14세)

3. 오붓한 가족생활을 그림

시설 아이들은 시설을 “집”이라고 부른다. 그런데 시설 아이들이 보기에 이 “집”은 부모와 함께 사는 다른 아이들의 “가정 집(진짜 집)”과 다를 것 같단다. 단적으로 “가정 집(진짜 집)”에서는 냉장고 문을 언제든지 열고 먹고 싶은 음식을 마음껏 꺼내 먹을 수 있다.

시설에 오기 전에 외롭고 심심했는데 시설은 사람이 많아서 놀기는 좋다. 그래도

가정집과 같은 아늑함과 정겨움을 느낄 수 있는 우리 가족만의 생활을 상상한다. 서로 뜻이 맞는 정다운 가족생활을 경험하고 싶다. 이것은 나중에 결혼하면 자기 아이들은 무슨 일이 있더라도 이곳 시설에 보내지 않을 거라는 다짐으로 이어진다.

시설 아이들이 시설생활에서 불만스러워 하는 부분을 보면 일반 “가정 집(진짜 집)” 아이들의 그것과 별반 다르지 않다. 반찬이 맘에 안 들고 아침 일찍 일어나야 하는 것이 귀찮고 컴퓨터 마음대로 못해서 화나고 등등. 똑같다. 시설 아이들도 학교에서 친구들이 자기 부모에 대해 얘기하는 불만을 들어봤고 그래서 “가정 집(진짜 집)”이나 시설이나 마음대로 못하는 점에서는 별로 다르지 않다는 것을 안다. 그래도 “가정 집(진짜 집)”이 나아 보인다. 거기에는 “엄마, 아빠”가 있고 “화목”이 있을 테니까. 시설 아이들은 “어느 좋은 시설의 아이”가 아닌 “누구 집의 딸, 아들”로 소속되어 살고 싶기 때문이기도 하다.

가정집 같은데. 여기 시설은 말구요. 그러니까 입양된 것처럼 가정집. 가정집 같은거 그러니까 친구들 아빠 중에서두요. 저도 아빠라고 부르고 싶다 생각한 적이 되게 많아요. 그래가지고 그냥. 여기는 아버지 어머니 언니 오빠 이렇게 불러야 되니까. 그래가지고 엄마 아빠라고 불러보고 싶어요.(중략) 아 웬지. 부르는데 느낌이 다를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엄마 아빠라고 부르면요 더 편한 상대라고 해야 되나. 편한 상대라고 그렇게 생각할 것 같고. 아버지 어머니는 웬지 되게 좀 무게감 있고 그래가지고.(중략) 음. 제 기분 알아주고 어 위로도 해주고 가끔씩 우리 집 사람들 전부 다 다른 사람들 말고 어딘가 놀러가서 그냥 좀 마음도 털어놓고 얘기도 한 번 해보고 그러니까 가정 집 엄마 아빠들이 딸 자식들한테 해주는 것처럼.(중략) 그냥 딸 자식들은 다 소중하잖아요. 다른 엄마들한테. 다른 엄마아빠들한테. 그러니까 저도 그렇게 하고 싶다는거죠.(여, 13세)

면: 00야. 선생님이 약간 엉뚱한 질문 하나 할게. (중략) 잠을 자는 동안에 기적이 일어났어. 밤 사이에 그러면 아침에 눈을 딱 떠서 뭐가 달라져있으면 뭐가 달라져있으면 ‘와! 밤사이에 기적이 생겼다. 어! 기적이야’ 무엇을 보면 알 수 있을까? (중략)

참: 이 집이요. 집이 밤 사이에요 어떤 이상한 일이 벌어져서 막! 저희 가족만 사는 집. 단독 주택있잖아요. 그런데 살게 돼서 깨어나면 그런 집에서 있을 것 같아요.(남, 12세)

4. 공동체라는 이름 속에 묻혀 지냄

시설 생활에는 여러 규칙이 존재한다. 명시적인 규칙보다 암묵적인 규칙이 더 많다. 그 가운데 하나가 ‘행동 통일’이다. 모든 행사에 빠짐없이 참여해야 하고 무슨 일든 함께 해야 한다는 규칙이다. 이런 규칙 때문에 내가 하고 싶은 것은 묻어야 할 때가 잦다.

1) 다름은 거슬림

한 아이의 튀는 행동은 관심거리다. 특히 그 아이가 맘에 들지 않을 때는 그런 행동이 눈에 더 거슬린다. 맘에 들지 않는 아이의 튀는 행동은 깎죽대는 것으로 비춰져 그냥 둘 수 없다. ‘튀면 맞는다.’ 그러기에 괜히 매를 벌거나 미움을 받을 행동은 스스로 자제해야 한다. 그것이 시설에서 편히 사는 방법이다.

집에 가면 또 책 본다고 뭐라 그래요. (중략) 위에 있는 형들이요 자꾸 상관을 해요. 애들 나가는데 너는 책보냐고 막.. 아하아하(탄식소리) 쫓! 책보면 안되나!(혼잣말 하듯이) (중략) 어쨌든 책을 많이 본다고 뭐라 그래요.(남, 12세)

F: 짬뽕으로 하죠. 짬뽕으로 다 통일해요.

면: 왜 통일해?

A: 통일이 좋아요.

D: 항상 통일이예요.

F: 집에서는 다 통일이예요. 집에서는 단결을 중시하기 때문에 다 통일해요. 통일이 편해요.(집단면접1)

2) 틀에서 벗어날 수 없음

연구 참여자들은 중학교 1-2학년으로 자기 마음대로 행동하고 싶은 자유로움에 더욱 민감할 수 있다. 청소년기가 그렇듯이 가출 생각도 있다. 이런 점을 감안해도 “감옥과 같은 시설”이라는 얘기는 개인적 선택과 자유에 대한 시설 아이들의 갈망이 얼

마나 높은가를 짐작하게 한다. 그런데 시설 아이들이 생각하는 자유라는 것은 매우 평범하다. ‘컴퓨터 마음대로 하고 TV보고 싶은 대로 보고 자고 싶을 때 자고 밥 먹고 싶을 때 먹는 것’ 이런 것들이 아이들이 원하는 자유다.

말하자면 (음) 문하고 창문이 있는 감옥이라고 할 수 있죠. 이 집에 있는 건데 행동이 되게 통제되구요. 그래도 옛날보다 지금이 덜 하지만요. 그래서 뭐 할 때두요. 그것을 모르구요 집에서 큰 행사를 해요. 힘도 좀 들고. 그런데 어떤 한 사람이 그것을 몰라요. 모르고 집에 늦게 들어왔어요. 그건 바로 죽죠.(남, 12세)

이 집은요 완전히 이거 이거예요. 교도소 같아요. 아니 교도소 말구요. 음음.. 어쩔 때는 감옥같기도 하죠. 웬 줄 알아요. 비가 오면은요. 비가 오면은요. 사람들이 할 것이 없잖아요. 방안에만 있기만 하잖아요. TV는 또 질러구요. 또 사람들이 컴퓨터를 하고 싶은 마음인데요. 근데 컴퓨터도 안 시켜주고. 아! 이거 안 시켜줘요. 완전히 시켜줄 생각을 안해요.(남, 15세)

5. 성장을 자극하는 환경 부재

시설은 시설 청소년의 성숙, 발전을 고양하는 환경을 제공하지 못하고 있다. 아이들이 많아 놀기에는 좋지만 인정, 존중, 참여, 격려, 칭찬, 이해와 같은 긍정적인 상호작용은 드물다. 닳고 싶은 사람도 존경하는 사람도 적다. 장난하고 욕박지르고 노는 것을 배우기 더 좋은 곳이다. 그래서 인간에 대한 예의나 배려를 체득하기 쉽지 않다.

1) 시설은 놀판

시설에서 가장 많이 듣는 얘기 중의 하나는 “공부 열심히 해야 한다.”, “공부해서 대학가야 한다.”는 것이다. 공부가 중요한 것은 같은데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다. 그렇다고 다른 친구들처럼 공부시키는 부모님도 없다. 공부보다 장난치며 노는 것이 훨씬 더 좋다. 주위를 둘러보면 놀기는 쉽다. 놀기만 하는 어린 동생도 있고 다양한 연령이 생활하는 모두의 공간이다 보니 큰 형들 공부를 위해 목소리를 낮추는 동생도 없다.

놀이와 공부가 같은 공간에서 동시에 이루어진다. 이런 면에서는 시설은 참 자유롭다.

수업이 9시에 시작하는데요. 그 전에 (숙제)하면 되죠? (중략) 숙제가 많을 때는요. 아침에 첫 차 형들 갈 때 그 때 같이 가서.(중략) 숙제 생각 없이 그냥 가면요. 그냥 가서 하면 되는데. 애들이 가르쳐줘가지고.(남, 14세)

책상을 하나 사요. 내가 갖고 싶은 것 있잖아요. 내가 컴퓨터도 갖고 싶으면 사 놓구요. 진짜 아무 사람 없어요. 공부만 하는거요. 편안하게. 주변에 사람 없고 고시 공부하는 사람들이요 사람없이 공부하잖아요. 이렇게 하고 싶어요.(중략) 노는 것 밖에 안돼요. 사람들이요. 애들도 선생님이 하라고 하는데요. 안해요. 진짜요. 진짜 노는 것 밖에 안돼요.(남, 15세)

2) 장난치기로 소일함

시설 아이들의 주요 놀이는 “장난치기”이다. 장난치기는 주로 어린아이들이 재미로 하는 짓, 또는 심심풀이 삼아 하는 짓, 짓궂게 하는 못된 짓 등의 뜻을 담고 있다(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홈페이지, <http://stdweb2.korean.go.kr/main.jsp>). 간죽대기, 시비걸기, 괴롭히기, 까불기, 별명 부르기, 가짜로 싸우기, 열 받게 하기, 욕하기, 흉보기, 웃음거리로 만들기, 깔보기, 떠들기 등이 아이들끼리 있을 때 주로 소일하는 방법이다. 상대방의 감정은 중요하지 않다. 나에 대한 상대방의 감정에는 예민하여 사랑·인정받고 싶은데, 상대방의 기분을 먼저 읽어 배려하거나 이해하는 것은 서투르다. 애먼 말로 상처를 주기도 한다. 장난치며 노는 것에 좋은 점도 있다. 쌓이는 스트레스를 늘면서 잊을 수 있기 때문이다.

애들 막 괴롭히고 재밌게 놀아요.(남, 14세)

제가 그 별명을 제가 막 뭐라고 해요. 개는 그거 보지 않고 계속 막 놀려요. (중략) 별명 부르는 거 참 안 좋다고 생각해요. 솔직히 말해서 별명이 왜 붙었는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누구 한사람이 이티라고 부르면요 다른 사람도 계속해서 그렇게 말하잖아요. 언젠가 자신도 모르게 자신의 별명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는 잘 모르

쥬. 그러니까 막 성격이 난폭해지는거예요.(남, 12세)

나쁜거. 저한테 시비를 걸거나.(중략) 막 등허리 박고 그러는데. 싸우지는 않구요. 괜히 그냥 계속 괴롭히면서요. 그러면 저는 계속 때리면서요. 그냥 서로 막 때리는데. 서로 막 때리는데.(남, 13세)

솔직히 지금 엄마 아빠 있는 애들한테요. 제가 매일 그래요. 여기는 엄마 아빠가 말하고 가도 데려갈 마음이 없을거라고. 그러면서 제가 상처를 많이 줘요. 개네들한테. 또 지금은 이 집에 지금은 외출나갔는데요. 그 꼬마 애는 개 아빠 차가요. 빼가번쩍 하구요. 되게 돈도 많은 것 같애요. 그런데요. 안 데려가는거 보면은 너네 아빠도 참 웃기다 이런 식으로 상처를 많이 줘요. 그러니까 그냥 애들도 애들은 아주 어리니까 저한테 말대꾸해요. 우리 아빠 그런 사람 아니다. 막 이런 식으로. 그래가지고 저는 그래요. 어디 안 그러나 보자 그러면서 그냥. 약간 되게 상처를 주고 그래요.(여, 13세)

F: 내가 더 늦게 들어왔어

A: 애는 너무 갑쳤어. 들어올 때

F: 내가 뭘?

A: 책 읽으며 들어오는게 되게 갑쳤어요.

F: 책 읽는게 갑치는거야.

A: 머리 딱 길고.

F: 형! 머리 긴 것도 내가 기른거야. 아버지가 미용실에 안 데려다 준거지.

B: 야! 돈 달라고 해 가아. 니가.

F: 내가 그때 뭘 알아서. 그 때 초등학교 1학년이었어. 초등학교 1학년

B: 일곱 살이면 알 건 아 알아.(중략)

B: 그런데. 야! 너 너 머리 그렇게 길었을 때 너희 아버지는 뭐했어? 너 아버지는 머리 어떻게 했어?

F: 내가 머리 길었을 때 우리 아버지는 내 곁에 없었어.

B: 아버지는 맨날 땡고 다녔어.

F: 아버지 그때 병원에 있었다구.(집단면접1)

어떨 때는 잊어버리고 (음) 그냥 잊어버리구요. 어쩔 때는요 놀다보니깐요 없어질 수 있으니깐요. 다행인 것 같아요. 내가 했던 거 쌓인다고 했잖아요. 스트레스처럼요. 쌓이면요 놀다가요 아니면 그냥 잊어먹는거예요. 그게 제일 좋다고 생각해요. 기억하면요 마음 아프고 이제 어쩔 수 없으니깐요.(남, 15세)

3) 칭찬받고 싶음

시설 아이들은 야단을 맞은 경험은 많지만 좋은 일로 주목받아본 적은 별로 없다. 나름대로 열심히 한 일도 어른들 눈에는 한참 부족해보이고 맘에 들지 않을 때가 있다. 시설이 자신들을 믿고 힘을 북돋워주는 그런 곳이었으면 좋겠다.

막 일을 하잖아요. 일을 열심히 해가지고 막 칭찬해요. 일 하나만 잘못된 거 갖고요. 막 그전에 했던 게 뒤집어써서요. 아무리 잘해도요 뭐 하나만 잘못하면 무조건 다 잘못돼버려요. (중략) 최근에 저 일 열심히 했거든요. 예를 들어서 발일이나 그런 일 해도요. 가끔씩 하다보면요 갑자기 뭐 잘 못하면은요. 괜히 제 동생 막 이름 들먹이면서요. 저는 동생보다 못하다고. 그리고 막 지금까지 한 일도 다 이렇게 했냐고 그 래요.(남, 12세)

공부를 잘하잖아요. 공부를 잘하면요. 공부를 잘하는 사람은 무조건 칭찬해주고 공부를 못하잖아요. 그러면 무조건 욕만하고. 공부를 못한다고 막 비웃어요. 희망이 없다는 뜻이잖아요. 희망이 없다는 말과 똑같잖아요. 포기한다는 뜻이요. (중략) 하다가요 막 못한다 이 말이 제일 싫어요. 하고 싶은 마음이 안 생겨요.(남, 15세)

6. 아이들끼리 더 가까움

시설에는 서열이 분명하다. 나이에 따라 할 수 있는 일과 해야 할 일이 정해져있다. 중학생이 되면 외출이 가능하고 여자 아이들은 어린 아이 돌보기와 설거지를 해야 하는 식이다. 이뿐 아니라 서열의 윗자리로 올라갈수록 장난치기의 대상이 되기보다 장난을 거는 쪽이 되어 열을 적게 받으면서 즐겁게 놀 수 있다. 또한 자주 바뀌는

시설 선생님보다 더 오랜 시간 동생들과 생활하기에 동생들에 대한 애정과 책임도 있다. 동생들이 시설 선생님에게 야단맞으면 속상하다. 동생들이 잘못하면 시설의 큰 아이들이 야단맞기 때문에 관심을 안가질 수도 없다. 시설의 큰 아이들은 여러 가지로 자신을 동생들에게는 없어서는 안 될 존재로 여긴다.

그래도 (선생님은) 그럴만한 자격(야단칠 자격)이 없다고 해야 되나? (나기도 많고 선생님들이) 그래도 언니들이 하는 것은 못했어요. 서열 같은거 그런거 우리 집에서 많이 따져요.(중략) 선생님들이 야단치세요. 그런데 저희들보다 더 오래 안가니까. 저희 때부터 계속 언니들 말이 최고로 알았어요. (중략) 언니들 말이 다 맞고 다 좋은 거고 이런 식으로 생각했어요.(여, 13세)

선생님한테 얘기하면요. 그 일이 커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계네들이 다 알고 얘기 하는거죠. 그래서 저희가 그랬어요. 누가 괴롭히면은 선생님한테 먼저 얘기하지 말고 언니한테 먼저 얘기하라고. 저희한테 먼저 얘기하라고요.(중략) 그냥 작고 사소한 것은 저희들한테 다 얘기해요. 저희가 대체로 다 해결하죠.(여, 14세)

동생들 보러 와야죠. 보고 싶죠. 제일 보고 싶은 거는 동생들이죠. 보고 싶은 이유가 같이 있었고 몇 년 동안 있었는데 안보고 싶은 마음이 있겠어요?(남, 15세)

V. 결 론

본 연구는 대숙사 형태의 양육시설에서 살고 있는 청소년들이 시설 생활을 어떻게 경험하고 이해하고 있는가를 알아보기 위한 목적에서 이루어졌다. 시설 생활 경험을 이해하기 위해 양육시설 한 곳을 찾아 그곳에서 생활하고 있는 중 1-2학년들을 만나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보았다. 자료 수집은 주로 개별 및 집단 면접을 통해 이루어졌으며 질적연구방법의 일반적인 분석 절차에 따라 자료를 분석한 결과 6가지 주제가 도출되었다.

시설보호 청소년은 시설 생활에서 ‘시설은 삶의 일부’, ‘소통부재=일방통행’, ‘오붓한 가족생활을 그림’, ‘공동체라는 이름 속에 묻혀 지냄’, ‘성장을 자극하는 환경 부재’, ‘아이들끼리 더 가까움’을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설은 삶의 일부’는 “여기 없으면 어떻게 살아요?”라는 말에서 알 수 있듯이 시설은 힘들었던 과거에서 벗어날 수 있게 해준 유일한 안식처였다. 처음에는 모두 친절히 대해줬고 사람들도 많아서 좋았다. 가난한 집에서는 누릴 수 없었을 것을 여기서는 아무 대가 없이 할 수 있었다. 시설은 아이들이 선택해서 살게 된 곳이 아니고 그러기에 퇴소만 바라보고 살지만 퇴소 후 생각날 것 같고 다시 찾고 싶은 곳이기도 하다.

이곳은 시키는 대로 해야 편히 살 수 있는 곳이다. ‘소통부재=일방통행’이라는 주제에서 드러나듯이 듣고 따라야 한다. 대화를 통해 서로의 뜻을 나누고 설명하고 양해를 구하거나 하는 경우가 드물다. 그냥 언제나 그래왔으니까 이번에도 예외가 없는 것이다. 그러다보니 시설 어른들의 말은 잔소리로 귀가를 울릴 뿐이고 하고 싶은 얘기는 가슴 속에 묻는다. 묻는데 익숙해져서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었는지도 모르겠다.

처음에는 식구들이 많아서 재미있어서 좋았는데 엄마, 아빠, 나, 동생 이렇게 사는 집이 그림다. 끈끈함과 따뜻함이 가득한 그런 작은 집을 생각한다. 이런 생각은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일이 많거나 내 마음을 몰라주는 사람들 때문에 속상할 때 더욱 간절하다. 지금은 다른 대안이 없고 가난한 부모에게 짐이 되기도 싫어 어쩔 수 없이 그냥 시설에 살지만 어른이 되어 결혼한 후에 자식들은 절대로 시설에 보내지 않겠다고 다짐한다.

시설에 살면서 ‘나는 어떤 사람인가?’, ‘내가 좋아하는 것은 무엇인가?’를 생각할 필요가 없었다. 주어진 일정을 소화하면 되고 다른 아이들과 같이 행동하면 된다. “나도요”라고도 말할 필요가 없다.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된다. 이처럼 공동체라는 이름 속에 묻혀 지내다보니 개인적인 성장과 발전은 더디다. ‘성장을 자극하는 환경 부재’라는 주제에서 드러나듯이 과정은 중요하지 않다. 결과만 보일 뿐이다. 열심히 했는데 어른 눈에 띄지 않아 부족한 성과, 노력했지만 오르지 않는 성적, 잘하려고 했는데 망친 일 등은 ‘그럼 그렇지. 너가 무엇을 하겠니?’라는 반응만 불러올 뿐이다. 또한 시설은 장난치기로 소일하기 좋은 곳이다. 뭘 하면서 어떻게 하루를 보내야할지 생각할 필요가 없다. 다들 놀고 있으니까 나도 그저 어울리면 그만이다. 다가올 미래(퇴

소)는 아직 멀게 느껴지고 가끔씩 생각하지만 금세 일상에 묻힌다.

시설에 어른은 많지만 아이들에게 중요한 사람은 오랜 시간을 변함없이 함께하는 언니오빠들이다. 선생님은 자주 바뀌기 때문에 아이들에 대해 잘 모른다. 여기서 ‘중요하다’는 것은 도움 제공과 함께 통제(권한)를 행사한다는 의미를 모두 담고 있다. 그런데 이러한 형제관계의 의미는 가정환경정도 문항에서 부모를 보육사(보모 등)로 대체하여 시설환경을 설명한 연구에서는 발견되지 않았던 주제이다.

갈 곳이 없었던 아이들에게 시설은 절대적인 존재이다. 없으면 안 되는 곳이지만 시설 생활이 충분히 만족스럽지는 않다. 시설은 아이들이 싫든 좋든 원하든 원하지 않던 인생의 긴 여로에서 시설 아이들이 머물러 있는 공간, 즉 베이스캠프인 셈이다. 원래 베이스캠프는 높고 험한 산을 오를 때 쉼과 회복, 도전과 용기를 제공하는 곳이다. 여러 가지 이유로 가정에서 생활하기 어려웠던 아이들에게 시설은 쉼과 회복, 치유, 독립을 준비하는 공간이어야 한다. 그런데 지금의 시설은 아이들에게 “그냥 있는 공간”일 뿐이다.

한편, 시설 청소년은 이들의 권익을 옹호해 줄 수 있는 사람(주로 부모)의 부재로 불이익에 처할 위험이 커서 적극적인 권익 옹호가 필요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의 6가지 주제를 통해 드러났듯이, 시설 청소년의 인권은 매우 위태로운 상황에 놓여있다. 더욱 큰 문제는 시설 청소년의 인권 문제를 제기하고 이를 해결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전혀 없다는 점이다. 생존권, 보호권, 발달권, 참여권의 차원에서 아동복지시설의 인권상황을 평가한 연구에서도 아동복지시설은 참여권이 다소 낮은 수준이고 아동권리보장체계(권리옹호를 위한 제도적 장치, 인권 옹호 지침과 고충처리, 인권교육, 시설의 투명성)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이용교 외, 2005). 우선, 아동복지시설 아동·청소년의 인권보장과 관련하여 정기적인 인권 실태 평가를 실시하고 시설 운영에 아동·청소년이 실질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시설의 문제는 아동 양육시설 운영자 개인의 문제를 넘어 대규모 시설의 구조적 문제이고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탈시설화, 개방화, 다기능화 등의 개혁방안이 제시된 것도 사실 오래 전 일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속 시원한 해결책이 나오지 않는 것 또한 현실이다. 장애인복지 분야의 경우 장애인 권리에 기반을 둔 인권기반실천, 자원의 발굴과 연계를 극대화하고자 하는 지역사회복지실천의 강조, 공급

자 위주의 복지가 아닌 수요자가 선택하고 결정하는 이용자 중심의 복지로 복지패러다임이 급속히 변화하고 있고 실제 가시적인 성과(소규모 주거환경 보장, 장애인 개별 지원 및 권리 강조)가 나타나고 있는 것(김미옥 외, 2008)과 비교할 때 아동양육 시설의 현실은 매우 대조적이다.

본 연구는 청소년 특히 초기 청소년의 목소리로 시설 환경을 구체적, 사실적으로 묘사하였다. 향후 연구에서는 시설 환경의 독특성과 관련하여 가정 맥락에서의 친사회적 행동(양보, 배려, 나누기, 돌보기, 도움 등)과 반사회적 행동(비난하기, 놀리기, 때리기, 무시하기 등)이 시설 맥락에서는 어떻게 나타나고 어떻게 이해되는지에 관한 심도 깊은 탐구가 필요하다.

참 고 문 헌

- 권재용(2005). 아동양육시설의 주거형태에 따른 생활특성에 관한 연구. 대한건축학회 논문집, 계획계 제21권 제9호, pp. 41-50.
- 권재용·김종영(1999). 육사시설의 생활공간 구성 형태에 관한 연구. 대한건축학회논문집, 계획계 제15권 제4호, pp. 63-72.
- 김미영(2002). 시설아동의 삶의 체험에 관한 문화기술지. 경희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김미옥·김용득·윤덕찬·송남영·김고은(2008). 장애인 거주시설 이용자 참여 매뉴얼 개발 연구. 서울: 한국장애인복지시설협회.
- 김민자(1992). 일반 및 시설 청소년의 자아정체감 지위와 환경지각에 관한 비교 연구. 연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김연미(2003). HIV/AIDS 감염인의 삶의 과정: 근거이론 여구 접근. 이화여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김영천(1996). 네 학교 이야기 - 한국 초등학교의 교실생활과 수업. 서울 : 문음사.
- 김진숙·이근무(2005). 위탁아동의 양육계약해지에 대한 질적사례연구. 한국가족복지학, 제15호, pp. 41-74.
- 노혜련·장정순·백은형(1997). 시설아동의 심리사회적 실태와 상담욕구에 관한 연구. 서울: 한국아동단체협의회.
- 라이너 마리아 릴케(2000). 릴케전집 9-희곡. 책세상.
- 박영숙(2003). 초기 청소년의 위기모형 구축. 정신간호학회지, 제12권 제2호, pp. 182-190.
- 박종만(2002). 고아원2. 일송북
- 석정삼(1999). 아동복지 육아시설의 양육환경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SOS어린이 마을과 일반 육아시설의 비교를 중심으로-. 경남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양점도·변미희(2001). 아동복지시설의 양육환경이 아동·청소년 발달에 미치는 영향. 청소년복지연구, 제3권 제2호, pp. 13-23.
- 유수훈(2007). 아동보호시설의 거주실태 및 개선방향을 위한 조사연구. 한국교육시설학회지, 제14권 제1호, pp. 23-32.
- 유안진·한유진·최나야(2001). 문장완성검사를 통한 시설 청소년의 자아 및 환경 지각 영향, 한국아동복지학, 제12호, pp. 42-76.

- 이경숙(1998). 아동이 지각한 가정의 심리적인 환경과 개인·사회적 적응능력간의 관계. 건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이미혜(2002). 시설보호형태에 따른 보호청소년의 자아개념 비교연구.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이상준(2008). 시설청소년의 심리사회적 적응과 양육환경. 청소년학연구, 제15권 제3호, pp. 49-69
- 이서정(2001). 생활시설 아동의 심리적 환경과 부적응의 관계. 가톨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이양숙(1999). 육아시설 청소년의 부모 체험 연구. 충남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이용교 · 이명묵 · 안경순 · 정경은(2005). 아동복지시설 인권평가지표 마련을 위한 연구. 서울. 2005년도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상황실태조사 연구용역보고서.
- 이준의(1997). 아동복지수용시설의 양육MODEL에 관한 연구-한국 SOS 어린이마을을 중심으로-, 단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이태수 · 함철호 · 이용교(1997). 소규모 아동복지시설연구. 서울: 인간과 복지.
- 이혜연 · 서정아 · 조홍식 · 정익중(2007). 아동복지시설 퇴소청소년의 실태와 적응과정 연구. 서울: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정선욱(2002). 시설보호 청소년의 심리사회적 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정선욱(2006a). 시설생활경험연구-비혈연형제관계를 중심으로-. 아동권리연구, 제10권 제2호, pp. 151-183.
- 정선욱(2006b). 시설보호 아동의 보육사 관계 경험 연구. 한국아동복지학, 제21권, pp. 115-145
- 정영애(2000). 고아원 아이들. 대교출판.
- 정해수(1999). 양육형태에 따른 청소년의 시설병적 특성 비교 연구-대숙사육아시설, SOS 어린이마을, 일반가정 청소년의 시설병적 특성 비교 연구-. 중앙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최나야 · 유안진 · 한유진(2002). 시설 청소년의 대인관계 특성에 대한 사례 연구. 한국 가정관리학회지, 제20권 제2호, pp. 161-175.
-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홈페이지(1999년), <http://stdweb2.korean.go.kr/main.jsp>(2009년 2월 5일 검색)

- Berg, B. L.(2001). *Qualitative research methods for the social science(4th)*. MA: Allyn & Bacon.
- Gavrin, J. B. and Sacks, L. S.(1963). Growth potential of preschool-aged children in institutional care: A positive approach to a negative condition, *American Journal of Orthopsychiatry*, pp.399-408.
- Leathers, Sonya. J.(2000). *Behavioral disturbance among foster children: The Role of detachment from caregivers and community institutions*.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The University of Chicago
- Roy, P., Rutter, M., and Pickles, A.(2000). Institutional Care: Risk from family background or pattern of rearing?, *The Journal of Child Psychology and Psychiatry and Allied Discipline*, Vol. 41 No. 2, pp. 139-149.
- Seiffge-Krenke, I.(1995). *Stress, coping, and relationships in adolescence*. Mahwah: Lawrence Erlbaum Associates.
- Schwandt, T. A., and Halpern, E. S.(1988). *Linking auditing and Methevaluation: Enhancing quality in applied research*. Sage.
- Strauss, A. & Corbin, J.(1998). *Basics of qualitative research : Techniques and procedures for developing grounded theory*. Sage Publication.
- Timberlake, E. M. and Verdieck, M. J.(1987). Psychosocial functioning of adolescents in foster care, *Social Casework*, Vol. 68 No. 4, pp. 214-222.
- Vorria, P., Rutter, M., Pickles, A., Wolkins, S., and Hobsbaum, A.(1998). A comparative study of Greek children in long-term residential group care and in two-parent families: I. social, emotion, and behavioral difference, *Journal of Child Psychology and Psychiatry*, Vol. 39 No. 2, pp. 225-236.
- Whittaker, J. K.(2002). The future of residential group care. *Child Welfare*, Vol. 79 No. 1, pp. 59-74.

ABSTRACT

The Meaning of Adolescent's Institutional Lives

Jeoung, Sun-Wook*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understand the meaning of adolescent's institutional lives. The existing research in this area has been conducted by Quantitative research methods with a home environment scale being used to measure unique institutional environments. As a result, the unique meaning of institutional life has passed unnoticed. Accordingly, this study focuses attention upon institutional life as it is experienced by adolescent themselves. For this purpose, I collected data mainly from interviews with six adolescents in their early adolescence, and analysed the data through a qualitative data analysis method.

The results showed that six key experiences namely, “The institution forms a part of life”, “One way communication”, “longing for a cozy family life”, “to become immersed in communal living”, “absence of environmental stimulus”, and “being close to siblings”. Lastly, this study suggested measures to enhance the wellbeing of adolescents in institutional care.

Key Words : institutional life, institution environment, qualitative research

투고일 : 3월 16일, 심사일 : 4월 16일, 심사완료일 : 4월 16일

* Duksung Women's University, Assistant Professor

